

<서평>

The Green Bible:
Understand the Bible's Powerful Message for the Earth
(M. G. Maudlin and M. Baer ed., New York: HarperCollins, 2008)

김희석*

1. 들어가는 말

그린바이블(Green Bible; 이하 GB)은 2008년 하퍼콜린즈(HaperCollins) 출판사에서 환경보호론(environmentalism)적 시각을 가지고 제작한 영어 성경이다. 부제가 “지구를 위한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를 이해하라”(Understand the Bible's Powerful Message for the Earth)로 되어 있는 점이 이 성경의 환경보호론적인 제작 의도를 뚜렷이 보여준다. GB는 재생용지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콩기름을 사용하여 인쇄되었기에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를 실천에 직접 옮긴 것으로 평가되어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GB가 사용한 번역본은 NRSV(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환경보호론적 시각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글들을 제공하는데, 106페이지에 걸쳐서 12개의 글들과 1개의 인용집, 그리고 NRSV에 대한 설명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신구약 66권을 싣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환경보호론적 관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녹색으로 표기하고 있다.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환경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 하겠다. 세 번째 부분은 독자들을 위한 보충자료를 제공하는데, GB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6가지 관점을 제공하는 트레일 가이드(Green Bible Trail Guide), 기독교적 관점에서 환경보호론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설명하는 실천목록들, 그리고 주제 색인(subject index)과 용례 색인(concord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의 글을 작성한 필진은 모두 15명인데, 다양한 신학적, 직업적 분포를 드러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Pope John Paul II), 영국 성공회 더럼 주교를 역임한 라이트 교수(N. T. Wright), 환경보호 운동가인 베

* 총신대학교 조교수, 구약학.

리(Wendell Berry), 전직 의사이며 신앙과 환경보호운동을 접목하여 활동하는 슬리스(J. Matthew Sleeth) 등이 각자의 다양한 입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고하였다.

본 서평은 이러한 GB의 세 부분을 요약하고 비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GB의 첫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 실린 글들의 중심내용을 서술한 후 간략하게 평가할 것이며, 그 후에는 성경본문 중에서 환경보호론적인 것으로 선별된 본문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GB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2. 주제 글 모음의 요약 및 평가

각 글의 내용을 요약한 후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평가하려 한다.

2.1. 서언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법칙이다. 그런데 이 공동체 중에서 자연의 파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타락한 창조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건이다.

2.2. 서문

창조의 주제와 관계되는 것을 녹색글자로 표시하였다. 다음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엄밀하게 선택하였다: 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조세계를 돌보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지를 표현한 구절들; ② 피조세계의 구성요소들(땅, 물, 공기, 식물, 동물,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표현한 구절들; ③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표현한 구절들; ④ 우리가 피조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받았음을 설명하는 구절들.

2.3. 서론: 친환경적 하나님(a Green God)의 능력

저자인 슬리스(J. Matthew Sleeth, M.D.)는 자신의 회심 경험을 통하여 GB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저자는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하였는데, 그

성경 읽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고백한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생명나무의 주제를 통하여 그는 성경의 중심주제가 하나님(God), 인간(humans), 나무(trees)됨을 발견하였다. 이 생명나무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하면서 성경 전체를 마무리한다. 저자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위치해 있는 여러 성경본문들에 나타난 나무에 대한 용례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나간다. 구약의 용례에서는 창 8:11; 18:1; 22:13; 49:22; 출 3:4; 15:25; 삿 9:7-15; 삼상 22:5; 왕상 4:33; 19:4; 시 1:3; 잠 3:18; 욘 4:6, 11 등을 예로 들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이미지로 설명하는 구절들을 예로 든다. 예수님은 나무를 다루는 목수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겨자나무에 비유하셨고(막 4:31-32), 그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설명하셨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즉 구속의 사역과 나무/자연은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창세기 2:15에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는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한다. 저자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피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곧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피조세계에 대한 신앙인들의 책임을 부각시킨다. 저자는 자신이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의사직을 버리고 피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인류 모두가 피조세계를 돌보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2.4. 환경론의 렌즈를 통하여 성경을 읽기

저자인 드위트(Calvin B. DeWitt)는 피조세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대여섯 가지를 정리한다: ①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며 나는 이 세상을 스쳐지나갈 뿐이다; ② 환경운동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많다; ③ 나는 환경론적인 측면에서는 극단론자가 되고 싶지 않다; ④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마음대로 다루도록 하셨다; ⑤ 인류가 환경보다 더 소중하다; ⑥ 환경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저자는 이후에 독자들이 피조세계를 돌아보기 위한 원리들을 제시한다: ① 지구보존의 원리; ② 풍성함의 원리; ③ 안식일 원리; ④ 제자도 원리; ⑤ 왕국 원리; ⑥ 만족 원리; ⑦ 실천 원리; ⑧ 보존의 원리

2.5.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기, 모든 피조물들과 화목하기

이 글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Pope John Paul II)가 1990년 1월 1일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한 메시지이다. 그는 창조 시에 세워진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타락 사건을 통해 죄로 오염되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되었기에, 인류가 피조세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적 문제는 사실상 인류의 도덕적 타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생명의 가치와 창조질서를 귀중하게 여김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런 환경론적 책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초두에서 창조와 구속의 성경내용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환경보호 요청에 대한 호소는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윤리적인 성격을 짙게 띠고 있다.

2.6. 왜 나는 환경보호론을 지지하는가

저자 맥레렌(Brian McLaren)은 자신의 환경론적 논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경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전통적인 피조세계에 대한 이해인 창조 후 타락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저자는 지속적인 창조(continual creation)의 관점을 제시한다.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피조세계는 계속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로 인한 타락사건도 창조의 발전이라고 저자는 이해한다. 또한 저자는 교회의 전통적인 내세론 중심의 종말론을 비판하면서 현실의 세계에 실현되는 종말론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피조세계를 섬기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개인주의의 벽을 넘어 공동체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글은 매우 독특한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계속적인 창조’란 구약신학에서 생소한 개념이며, 성경신학에서 종말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환경론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모두 전통적이고도 고리타분한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2.7. 창조신학: 유대교적 관점

저자 번스타인(Ellen Bernstein)은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대한 충실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그는 창조신학의 십계명을 제안하였다: 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② 선(goodness);

③ 미(beauty); ④ 습관, 즉 장소에 대한 감각; ⑤ 풍성함과 유지성(sustainability); ⑥ 독립성, 관계, 공동체; ⑦ 언어; ⑧ 경계들(boundaries); ⑨ 인류의 장소: 지배와 봉사; ⑩ 안식. 이런 원리들을 실천할 때에 환경에 대한 올바른 삶의 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기본 논지이다.

2.8. 지구상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알기: 구약성경으로부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배우기

저자 데이비스(Ellen F. Davis)는 이 글을 통하여 구약에 나타난 환경에 대한 책임의 주제를 논한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계획에는 인간뿐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포함되어 있기에, 인간의 타락은 피조세계 전체의 고통을 가져왔고, 따라서 이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 언약공동체가 행해야 할 주요한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2.9. 예수: 지구의 구원자

이 글에서 존슨(James Jones)는 복음서 본문 가운데 피조세계의 주제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7개의 본문을 찾고, 그 중 3개의 본문을 분석한다(눅 5:24; 마 12:40; 요 12:32-34). 저자의 논지는 ‘인자’(Son of Man; Son of Adam)라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 히브리어 ‘땅(Adamah)’과 연결된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자기 이해는 피조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피조세계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한 영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세계 전체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논거이다. 저자 데이비스가 밝히고 있듯이, 성경학자들은 아담(Adam)과 아다마(Adamah)를 이러한 어원론적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에 상당한 질문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필자가 보기에 저자의 성경신학적 논거는 매우 약하다.

2.10. 예수께서 오신다: 나무를 심으라!

잘 알려진 신약신학자인 저자 라이트(N. T. Wright)는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논거를 전개해 나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표가 단순한 내세에서의 육적/영적 회복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것(renewed creation)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들을 ‘이 땅’에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즉 ‘새롭게 된 땅’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시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구속사의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가 궁극적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시작되었고, 새 피조물인 성도들이 그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주체이기에 피조세계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1. 사랑의 지배(The Dominion of Love)

이 글은 테일러(Barbara Brown Taylor)의 설교문이다. 테일러는 인류가 피조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논하면서, 인류가 제 6일에 창조되었기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별히 동물과 조류도 6일에 창조되었기에, 인류는 피조세계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창세기 1:26-28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다스림’ 즉 인류가 피조물을 다스려야 한다는 책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저자는 인류의 다스림은 지배를 통한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다스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사랑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려 나가야 한다고 권고한다.

2.12. 지구를 사랑함은 곧 가난한 이들을 사랑함이다

저자 애쉬리만(Gordon Aeschliman)은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곧 가난한 소외 계층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성경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저자는 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논거를 사용한다. 부를 소유한 계층이나 국가가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 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이나 국가의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곧 그들의 것을 빼앗아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교회와 신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2.13. 피조세계에 대한 여러 세대의 가르침들

이 글에서 슬리스(Matthew Sleeth)는 사도신경부터 시작하여 릭 워렌 목사까지 기독교회사의 주요인물들이 환경에 관하여 언급한 약 100여 개의 내용들을 발췌하여 보여준다. 몇몇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이 지어진 어떤 이유를 갖고 있다. 비록 사람이 정확히 모두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존 크리스소스툼)

하나님은 복음서를 성경에만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나무, 꽃, 구름과 별들 위에도 기록하셨다 (마틴 루터)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의도하신다 (존 스토트)

지구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릭 워렌)

2.14. 그린바이블 산책 지침(Green Bible Trail Guide)

그린바이블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요하게 보아야 할 여섯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책 말미에 언급한다.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성경본문 앞에 배치되었다면 독자들에게 더 유익했으리라 여겨진다. 여섯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2.14.1.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좋게 여기셨다. 하나님은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피조물들을 계속하여 사랑하시고 돌보신다(창 1:1-31; 2:1-4; 9:8-17; 욥 38-39; 시 24:1-2; 104).

2.14.2. 하나님 발견하기

하나님은 피조세계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가 피조세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출 3:1-6; 시 147; 요 1:1-5; 골 1:15-20; 행 17:24-28).

2.14.3. 피조세계와 관계맺기

인류는 피조세계의 일부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세계 전체와 상호관계를 맺고 살면서 피조세계를 섬기도록 지음받았다(창 2:4-25; 출 23:10-13; 레 26:3-26; 계 11:15-19; 시 65).

2.14.4. 피조세계 보호는 곧 공의의 실천이다

피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류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결국 자연을 돌아보아야 한다(미 6:1-8; 사 58:10-12; 고후 5:14-21; 눅 10:25-37; 마 25:31-46).

2.14.5. 죄의 강력한 영향력

피조세계는 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왜곡시킨다(창 3:14-19; 호 4:1-3; 겔 34:17-22; 민 35:33-34; 롬 8:18-25).

2.14.6. 새로워진 피조세계

피조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한 부분으로 회복될 것이다(사 11:1-9; 65:17-25; 율 2:18-27; 계 21:1-5; 22:1-5).

2.15.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개인, 가정, 공동체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환경보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들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조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경과 관련된 성경구절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묵상하라; ② 가정에서 TV나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의 전원을 모두 끄는 ‘녹색시간(green time)’을 하루에 한 시간씩 가지라; ③ 교회에서 ‘창조주일(creation Sunday)’을 제정하고 그 주제로 예배하라; ④ 생일선물을 주고 받는 대신, 그 금액을 활용하여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념할 수 있는 나무를 심도록 하라. 둘째, 환경보호운동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환경보호를 지지하는 교단들, 신앙에 기초하여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소개하고 있다.

2.16. 색인

GB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두 가지 색인이 제공된다. 성경전체에 나타난 환경에 관련된 주제를 정리한 주제 색인과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한 단어 색인이 제공되고 있다.

2.17. 평가

지금까지 요약된 여러 글들은 여러 저자들의 개인적인 생각, 경험, 신학적 입장을 다채롭게 반영하고 있지만, 환경보호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자 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라이트의 글은 신학적 깊이를 갖추면서 자신의 신학성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맥레렌은 신학적 깊이보다는 나뉠대로의 성경묵상을 통한 자신의 사색의 세계를 보여주며, 번스타인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율법적 관점을 제공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천주교적 관점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GB는 ‘창조신학’ 자체의 논의보다는 창조신학을 근거로 하여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권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신학적 깊이보다는 실천적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는 GB의 편집의도는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닐 수 있겠으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 즉 본문에서 환경보호론을 지지하는 구절을 어떻게 찾아내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몇 가지 약점을 드러내게 된다.

3. 친환경적인 본문 구절 분류에 대한 평가

신구약 총 장수는 1,189장이며 총 구절 수는 31,102절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GB에서 친환경적 구절로 분류되어 녹색으로 표기된 절의 수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책명	친환경 구절수	전체 절수	Percentage (소수점 세자리에서 반올림)
창세기	127	1533	8.28
출애굽기	122	1213	10.06
레위기	175	859	20.37
민수기	35	1288	2.717
신명기	191	959	19.92
여호수아	16	658	2.43
사사기	2	618	0.32
룻기	0	85	0
사무엘상하	6	1505	0.40
열왕기상하	50	1535	3.26
역대상하	45	1764	2.55
에스라	3	280	1.07

책명	친환경 구절수	전체 절수	Percentage (소수점 세자리에서 반올림)
느헤미야	13	406	3.20
에스더	0	167	0
욥기	140	1070	13.08
시편	217	2461	8.82
잠언	43	915	4.70
전도서	19	222	8.56
아가	4	117	3.42
이사야	175	1292	13.54
예레미야	86	1364	6.30
예레미야 애가	0	154	0
에스겔	103	1273	8.09
다니엘	8	357	2.24
호세아	12	197	6.09
요엘	30	73	41.10
아모스	20	146	13.70
오바댜	0	21	0
요나	5	48	10.42
미가	8	105	7.62
나훔	4	47	8.51
하박국	13	56	23.21
스바냐	4	53	7.55
학개	13	38	34.21
스가랴	18	211	8.53
말라기	10	55	18.18
마태복음	91	1071	8.50
마가복음	66	678	9.73
누가복음	89	1151	7.73
요한복음	111	879	12.63
사도행전	33	1007	3.28
로마서	26	433	6.00
고린도전후서	54	694	7.78
갈라디아서	14	149	9.40
에베소서	18	155	11.61
빌립보서	9	104	8.65
골로새서	17	95	17.90
데살로니가전후서	6	136	4.41
디모데전후서	10	196	5.10
디도서	2	46	4.35
빌레몬서	0	25	0
히브리서	27	303	8.91
야고보서	7	108	6.48

책명	친환경 구절수	전체 절수	Percentage (소수점 세자리에서 반올림)
베드로전후서	25	166	15.06
요한1,2,3서	9	132	6.82
유다서	1	25	4
요한계시록	68	404	16.83
총계	2400	31102	7.72

위의 분석표를 살펴볼 때, 대개의 책들의 경우 친환경적인 구절들이 전체 절수의 5-1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구약 전체 구절들 중 7.72%가 친환경적인 구절로 분류되었다. 몇몇 책들은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레위기(20.37%), 신명기(19.92%), 요엘(41.10%), 하박국(23.31%), 학개(34.21%), 말라기(18.18%), 골로새서(17.90%)의 경우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분포도가 어떤 함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연 요엘, 하박국, 학개 등이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다른 책들보다 더 많이 지니고 있는가? 요엘서의 경우 40%가 넘는 높은 비율이 나타난 이유는 요엘서의 주제인 ‘여호와와 날’ 때문이다. 언약의 파기로 인하여 여호와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여호와와 날의 주제인데, 요엘서는 이 날에 대해 ‘메뚜기’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여 모든 곡물들을 상하게 한다는 이미지를 거듭 반복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메뚜기, 땅, 곡물 등의 단어들 이 거듭 등장하게 되고, 이런 단어들 이 등장하게 될 때 본문은 친환경적인 것으로 분류가 되었다. 즉, 친환경적 본문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중요시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GB 전체에 걸쳐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땅’(earth 혹은 land)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 구절은 친환경적인 구절로 이해되어 녹색으로 표기되었다. 그 구절 전체의 의미가 친환경적인지의 여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 혹은 ‘환경’에 해당되는 단어가 등장하는지의 여부만을 고려하여 친환경성을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요엘 2:1을 보자.

을 2: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
제 임박하였으니¹⁾

산과 땅이 언급되었으나, 이것은 여호와와 날이 심판으로 임했다는 문맥에서 언급된 것이다. 산(mountain)은 성산 즉 시온산을 가리키며, 땅은 이스라엘

1) 본 서평에서 성경구절을 제시해야 할 경우 설명의 용이성을 위하여 GB의 NRSV 영어구절들 대신 개역개정판의 한글구절들을 사용하였다.

땅을 가리키는 한정된 의미를 지닌다. 즉, 요엘 2:1의 산과 땅은 환경이나 피조물 전체로 해석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서의 경우, 전체 1505절 중에서 단 6절만이 창조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중 사무엘하 7:8-9의 경우를 보자.

삼하 7:8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삼하 7:9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은 다윗언약이 체결되는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위 본문의 문맥은 구속사의 중요한 발전기점 중 하나인 다윗언약이다. 그런데 GB에서는 이 본문을 유독 친환경적인 본문으로 분류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목장,’ ‘양,’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즉,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고려했지만, 그 사전적 의미가 본문에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신약성경의 예를 한 곳만 더 살펴보자. 골로새서 2:16의 경우이다.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이 친환경적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초하루(*νεομηνία*)라는 말이 NRSV에 new moon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초하루(*νεομηνία*)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연세계의 ‘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매월 첫날을 지정하여 지키는 절기로서의 명칭이다. 그런데 이 말이 친환경적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분류기준이 본문이해에 기초하지 못한 채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moon’이 등장했기에 이 구절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이해한 GB의 분류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해석학의 기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나타난 창조신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다. 환경에 대한 주제를 신학적으로 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하며 그런 논의를 위해서는 견실한 이론적 근거가 요구된다. 특별히 창조라는 신학적 주제와 구속이라는 주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좀 더 깊이 설명했다면 보다 통찰력 있는 환경보호론적 주장을 펼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성경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로 피조세계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온 피조세계가 ‘구속’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즉 ‘구속’의 주제는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 펼쳐지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 흐름이다. 구속의 궁극적 목표는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이며, 그 회복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가 어떻게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된다. 구속사의 목표를 넓게 정의한다면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인 것이다. 이렇게 창조신학을 정의하면, 성경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된다. 단순히 땅, 바다, 구름 등의 자연물이 언급된 부분만을 친환경적 구절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향한 섭리행위,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구속행위와 계획, 그리고 환경을 포함하여 사회, 문화 등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인간의 책임 등을 모두 친환경적 구절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정말 환경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려 한다면, 그 질문은 ‘얼마나 많은 구절이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양(量)에 대한 논의가 아닌 ‘기독교인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방향성(方向性)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GB는 성경본문이 말하는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시대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환경문제를 성경 출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 보자는 실천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GB의 편집진은 창조라는 주제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논의하기보다는 환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의 장(場)을 제공할 필요를 중요시하였을 것이며, 친환경적 성경본문을 선택하려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GB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GB를 비판하는 측면에서 보면, GB는 성경 본문의 환경에 대한 가르침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환경문제에 대한 의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하트랜드 연구소(Heartland Institute)의 환경정책 선임연구원인 테일러(James Taylor)는 ‘주류 복음주의 안에 GB에 대한 많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다’라고 언급하였다.²⁾ 미국 남침례교회 지도자인 랜드(Richard Land)는 예수님께서 말

2) <http://www.azcentral.com/arizonarepublic/news/articles/2008/12/29/20081229GreenBible1224>.

씀하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시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³⁾ 반면, 저명한 환경보호 단체인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미국의 기독교 동물보호운동 단체인 HSUS(The Human Society of the United States)의 지지를 받고 있다.⁴⁾ 시사주간지인 타임(Time)은 복음주의자의 54%, 특별히 19-29세 연령의 복음주의자들 중 63%가 기독교인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법과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GB와 같은 출판물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을 예상하였다.⁵⁾ 필자가 보기에는 위의 견해들은 환경운동과 성경신학적 관점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 측면에만 치우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환경문제를 더 이상 피해갈 수는 없다. 환경에 대한 의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에, 기독교는 환경보호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관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환경보호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앙적 태도도 잘못이며, 심도있는 신학적 논의없이 실천적 관점에서만 환경보호 논의를 전개하는 태도도 옳지 않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신학은 구속사적 관점과 깊은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이 피조물들에 대한 구속과 보호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GB는 창조신학의 시각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펼쳐갈 수 있는 중요한 장을 펼쳤고, 성경출판시장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 다만, 환경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의 부족으로 인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피조세계의 구속의 관점에서 본 환경보호를 지적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한국성서출판계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이러한 종류의 출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Keywords)

환경보호주의, 창조, 구속, 땅, 성경, 성경번역.

environmentalism, creation, redemption, earth, Bible, Bible Translation.

(투고 일자: 2011. 3. 7; 심사 일자: 2011. 3. 17; 게재 확정 일자: 2011. 3. 17)

html 2011. 3. 4. 접속.

3)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1842268,00.html> 2011. 3. 4. 접속

4) <http://www.greenletterbible.com/getinvolved.php> 2011. 3. 4. 접속.

5)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1842268,00.html> 윗글과 동일 접속.

<Abstract>

Book Review - *The Green Bible*:

Understand the Bible's Powerful Message for the Earth

(M. G. Maudlin and M. Baer ed., New York: HarperCollins, 2008)

Dr. Hee Suk Kim
(Chongshin University)

The Green Bible was published by HarperCollins in association with the so-called environmentalism's proposals. It has three major sections. In the first section, it provides a number of articles that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from various viewpoints--personal and communal, Protestant and Catholic, theological and practical. These articles are summarized and evaluated by the reviewer, with a claim that they would have helped much more if they had been interconnected theologically in order to suggest a thesis that can promote the book's environmental intentions. The second part presents the biblical text,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It is interesting that the verses classified as supportive of the environmental thesis are printed in green. Of significance to this reviewer is the criterion of classification. It seems certain that the criterion was whether a verse has a particular word that can represent a part of nature, for example, land, earth, sun, moon, locust, etc. This etymological approach is not good enough to investigate how the Bible approaches environmental issues. This reviewer argues that the two most important themes in the Bible, creation and redemption, should be integrally understood. In other words, creation theology, when sufficiently studied in relationship with the history of redemption, is capable of providing a viewpoint that supports how humanity can take good care of the creation. Environmental needs we now face should be viewed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that strongly purports to encourage believers to take care of creation as redeemed people of God. The third section consists of Green Bible Trail Guides and some practical advices for the readers. Despite the foregoing critiques, the Green Bible should be acknowledged as an attempt to help Bible readers to pay attention to one of the most urgent issues that Christians are asked to seriously ponder upon in the years to come.

The Green Bible was published by HarperCollins in association with the so-called environmentalism's proposals. It has three major sections. In the first section, it provides a number of articles that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from various viewpoints--personal and communal, Protestant and Catholic, theological and practical. These articles are summarized and evaluated by the reviewer, with a claim that they would have helped much more if they had been interconnected theologically in order to suggest a thesis that can promote the book's environmental intentions. The second part presents the biblical text,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It is interesting that the verses classified as supportive of the environmental thesis are printed in green. Of significance to this reviewer is the criterion of classification. It seems certain that the criterion was whether a verse has a particular word that can represent a part of nature, for example, land, earth, sun, moon, locust, etc. This etymological approach is not good enough to investigate how the Bible approaches the environmental issues. This reviewer argues that the two most important themes in the Bible, creation and redemption, should be integrally understood. In other words, creation theology, when sufficiently studied in relationship with the history of redemption, is capable of providing a viewpoint that supports how humanity can take good care of the creation. Environmental needs we now face should be viewed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that strongly purports to encourage believers to take care of creation as redeemed people of God. The third section consists of Green Bible Trail Guides and some practical advices for the readers. Despite the foregoing critiques, the Green Bible should be acknowledged as an attempt to help Bible readers to pay attention to one of the most urgent issues that Christians are asked to seriously ponder upon in the years to come.